



깨달음의 문으로 인도하는 도구

④ 화두의 역할

화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길래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일까?

화두나 공안은 모두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하는 참선수행의 한 과제입니다. 대부분 화두는 이유를 따지 말고 무조건 참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문명이 발달한 합리주의시대에 화두의 역할도 모르는 채 막연히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 고전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화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해 하는 일 없이 평온한 마음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선에서 말하는 지혜의 효능입니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자신의 저서 <간화결의론>에서 화두는 전제(全提)와 파병(破病)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제는 수시로 화두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누구인가하게 함으로써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파병은 일체 사량 분별심과 차별심, 환영(幻影) 등 참선 중에 오는 갖가지 선병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것이나 상식 이하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신을 당하고 체통을 잃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지혜보다는 욕심(貪)과 분노(瞋), 무지(痴, 어리석

음)으로부터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실체는 결국 공망(空妄)한 것이므로 자각한 한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를 통하여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던 대혜 스님(大慧, 1088-1163)도 "무자화두는 모든 번뇌 망상과 사된 생각을 타파하는 무기이며 지혜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화두만 들고 참구하면 모든 번뇌와 잡념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무자화두만이 아니라, '간시결'이나 '마삼근' '동산수상행' 등 여타 화두도 모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두는 진리가 아닙니다. 화두는 진리의 강으로 건너가는 배입니다.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처럼 여겨야 합니다. 잡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생각,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 외엔 모두 다 번뇌로 규정합니다. 번뇌의 우두머리인 욕심(貪), 분노(瞋), 어리석음(痴, 無智)으로부터 근심, 걱정, 슬픔, 불안, 방황, 망설임, 미련 등에 이르기까지 고뇌하게 하는 것은 모두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거의 번뇌 아닌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화두 참구에서는 분별심, 분석적인 사고를 가장 큰 번뇌 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창회 민족사 대표

모든 번뇌와 망상·사랑 분별심 차단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방편

화두의 역할은 1차적으로 모든 번뇌 망념과 사랑 분별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도록 화두를 참구해서 모든 번뇌 망념과 분별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을 보는 지혜와 사리(事理)를 판단하는 지혜,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매우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습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뜻 없는 일,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감성적으로는 그것을 좇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지를 배격하고 현실의 사상(事象)을 직시하는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정(正)과 사(邪)를 판단하는 지혜, 삶의 지혜(慧)를 길러 줍니다. 어리석음과 욕망을 버리고 무집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습기를 줍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살아가도록 밝은 눈(明眼)을 갖게 해 줍니다.

자각종색(覺覺宗蹟, 12세기) 선사는 자신이 지은 글 <좌선(坐禪儀)> (좌선하는 방법을 쓴 짧은 글)에서 '번뇌나 잡념이 일어나면 그 즉시 '번뇌'라는 사실을 인지(認知), 자각(自覺)하라'고 했습니다. 자각하면 번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각이 잘 되지 않을 때, 끝없이 잡념이 일어날 때는 화두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 '간시결'을 상기시켜서 번뇌 망상의 늪(苦海)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9년간 염불정진으로 즉신성불

④ 신라시대 노비 육면

신라 경덕왕(?~765) 때 강주(康州: 지금의 진주) 지방의 남자 신도 수십 명이 정성껏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고을의 경계에 미타사를 세우고 만일(萬日)을 기약하여 계(契: 결사)를 만들었다. 이때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육면(婁面)이라 했다. 그녀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선 채 스님들을 따라 염불했다.

주인 귀진은 그녀가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미워해서 매일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룻밤 동안에 다 찢으라 했다. 육면은 초저녁에 이를 다 찢어 놓고 절에 가서 염불했는데 밤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워 두고 손바닥을 꿰어 노끈에 꿰 뒤 말뚝에 메고는 합장하며 좌우로 흔들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 때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었다.

절의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 그녀에게 불당에 들어가 정진하도록 했다. 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육면은 몸을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 교외(郊外)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해골을 버리고 부처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蓮花臺)에 앉아 큰 광명을 발하면서 서서히 가 버렸는데, 음악소리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삼국유사> '감통편(感通篇)'에 나오는 일화이다. <삼국유사>에는 고귀한 여왕으로부터 비구니, 노비까지 한 사회의 모든 여성 구성원들이 고루 등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깨달음 여성은 물론이요, 관세음보살의 응신(應身)으로서 속진에 물든 남성을 주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위에서 육면 남자가 사람의 몸 그대로 즉신성불(即身成佛)한 장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여성 성불의 예를 보여준다.

일연 스님은 이 일화를 소개한 뒤 <승전(僧傳)>을 근거로 육면의 전생담을 소개하고 있다. 즉 관음보살의 현신이었던 팔진(八珍)의 무리 가운데 계(戒)를

얻지 못한 사람이 축생도에 떨어져 부처사의 소가 되었다가, 불경을 지고 간 공력으로 인해 사람으로 태어나 육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쉬지 않고 염불을 거듭해서 9년 만에 집의 들보를 뚫고 떠나는 영험을 보았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강원도 건봉사에서 발전한 '삼' 3명의 스님이 염불정진을 통해서 '육신 그대로 하늘에 오름(肉身騰空)' 예가 있을 정도로 염불은 가장 각광받는 수행이었다. 원효, 의상 대사는 많은 고승 대덕들이 정토수행의 실천자였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일부 수행자 가운데는 염불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불법(佛法)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헛된 분별심이자 부처님의 방편 교설을 비방하는 큰 죄업이 아닐 수 없다.

염불의 역사는 부처님 재세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함경>에는 3년, 5년, 6년, 10년(十念) 등의 염불이 있다. 즉,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 염계, 염시(念施), 염전, 염휴식, 염인반, 염신, 염사(念死) 등의 수행법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르며(여래 10호), 나무불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불발과 승단을 생각하는 삼염법 등으로 펼쳐져 있다.

염불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결합한 수승한 수행법임을 알아야 한다. 철오 선사는 "염불할 때는 다른 생각(別想)을 해서 안 된다. 다른 생각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정지(止: 停止, 사마타이다). 염불할 때는 모듬지기 뚜렷뚜렷 분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조(觀: 觀, 위빠사나이다)"라고 하였다. 염불하는 한 생각[一念] 가운데 지관(止觀)이 함께 갖춰지는 것이지, 따로 지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止)는 선정(定)의 원인이며, 선정(定)은 지(止)의 결과이다. 또한 관(觀)은 지혜(慧)의 원인이며, 지혜(慧)는 관(觀)의 결과이다. 철오 선사는 "한 생각이 없으면서 뚜렷뚜렷 분명함이 바로 고요하면서 비춤(寂寂而照)이고, 뚜렷뚜렷 분명하면서 한 생각도 일지 않음이 바로 비추면서 고요한[寂寂而照이다]"라며, 염불의 수행원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불법 문중에는 한 법도 버릴 게 없음을 佛事門中 不捨一法을 명심하자. 김성우 객원기자

<삼국유사> 감통편에 일화로 소개 속진에 물든 남성의 불성 일깨워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크라시목계통: 180×180
다크라시목계통: 180×125
다크라시목계통: 100×100
원목계통: 150×125
특히 브라켓

◆조립식형상 골조 가격: 180,000 사이즈: 2100×1800×400(mm) * 마루판은 별도 구매

원목목재기둥: 100×100×400
원목목재도리: 120×50
원목계통간대: 70×50
특히 브라켓

원목목재 20평형

◆지구산업
www.bangaro.com / 조판식형상
TEL: (063)323-3010 ~ 1 FAX: (063)323-3012

개좌번호: 동원 505055-56-006833 (예금주: 지구산업 광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제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심명 99절의 한 소설, 한 소설이 이름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비광명이다. (...) 이 심명은 언어와 문자이면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주옥같은 법문이다. 한 소설, 한 소설에 담긴 범용 선사의 뜻을 잘 관조하여 영산화상에서 가섭 존자가 지었던 미소 짓길 바라지 않는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심명 서문 중에서...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선가귀감 2월 법회
일시: 2월 3일(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도봉 선원
전화: 02-3494-0122

1호선과 7호선 도동산역 1번 출구
도봉선 입구
도봉 선원
도동산길역

www.zenparadise.com

안촌 법계사 신중명화(동)

안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민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일본 체류수행자 입방안내

대상
비구, 비구니, 법사(남·녀), 포교사

조건

- ① 입방자는 학력, 연령제한없음
- ② 3년수행후 본종단에 입방을 원할시에는 영구 상주 가능
- ③ 입방 상주자에게는 생활보장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적 지원함
- ④ 일본에서 사찰 개원하고자하면 본 종단에서 적극 지원함

문의

- 일본국 주소
◆ 우편 619-1401 日本國 京都府 相樂郡 南山城 村童仙房 8番地 總本山 高麗寺
이메일 mandeuk@yahoo.com
◆ 일본 직통 휴대폰 001-81-090-3719-1571
전 화 001-81-0743-93-0843
팩 스 001-81-0743-93-0670
◆ 우편 544-0033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生野區 勝山北 5-12-39 大本山 普賢寺
전 화 001-81-06-6712-1015, 1016
팩 스 001-81-06-6741-1755